옷핀·단추·실패·지퍼… '재미있는 작업'이 컨셉

光州日報 창사 60주년 기획시리즈
since 1952
젊은 예술인들

(7) 패션 아티스트 장소영

낡은 청바지 활용한 소품전 개최
해마다 두차례 개인전 열었으면

올해부터 무대의상 디자인 강의
패션·삶 이야기 담은 책도 준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엄마를 따라 서울 동대문 시장 원단 가게를 섭렵하고 다녔다. 졸린 눈을 비비며 터미널에서 새벽 첫차를 타고 동대문 시장에 도착하면 가게들이 문을 닫는 오후 5시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무거운 원단을 들고 엄마 뒤를 종종 따르다 보면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 울기도 했다.

막 태어나면서 늘 엄마(정옥순 도미패션하우스 대표)가 옷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본 장소영(42)씨는 엄마의 뒤를 이어 패션디자이너로 활동중이다. 실용적인 의상도 만들지만 몇년전 부터는 다양한 패션 아트 작품으로 정기적인 개인 전시회도 열고 있다.

지난해 9월 금호갤러리에서 열렸던 세번째 개인전의 주제는 '어머니와 딸'이었다. 책상 정리를 하다 엄마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한 게 계기였다. 낡은 흑백 사진 속 엄마의 모습을 일러스트를 하고 스캔, 디지털 프린팅 과정 등을 거쳐 새로운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일 수 있었다.

"그룹전, 개인전 등을 가지면서 조금씩 회의가 들던 참이었죠. 아트웨어를 주로 전시하다 보니, 전시회에 오는 관람객들에게 그 의상들이 모두 단순히 비현실적인 전시용으로만 보이는 경우가 많아, 어떤 감동도 줄 수 없다는 걸 항상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건 그냥 자기만족이란 생각도 들었구요. '어머니와 딸' 전을 준비하고 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이 방에 편하게 걸어두고 감상할 수 있는 예쁜 작품들도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어요. 단추 등 패션과 관련된 부자재와 제 석사학위 논문이기도 했던 디지털 프린팅 기법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았구요. 준비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기도 했지만 이제 조금 '방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는 29일까지 광주시 남구 봉선동 그랑삐아또 '예다음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패션아트전-커피 진, 그리고'는 지난해 품었던 고민의 결과물들이다. 그녀는 이번 전시에서 낡은 구제 청바지와 염색을 활용한 소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그녀가 작품을 제작하는 기본 철학은 '재미있는 작업'이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소재인 옷핀, 단추, 실패, 옷감 등을 활용해 즐겁게 작업하려 한다. 재활용품 활용 역시 또 다른 컨셉이다. 지난 전시에서는 거래처에서 버리는 지퍼를 얻어다 작업했고, '커피 진' 작업에서는 자신의 청바지를 탈색해 사용했다. 다음 전시회에서는 쓰고 있는 가죽 가방을 캔버스로 활용해 작업을 진행해볼 계획이다.

장씨는 대학에서 패션디자인 대신 산업디자인을 전공했다. 패션이라는 한가지 장르에 매몰되는 대신, 금속·가구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면서 좀 더 폭넓은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 후 코오롱 패션 산업연구원에서 1년간 강의를 들으며 색채학, 마케팅 등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엄마가 운영하는 숍에서 패턴을 배우고 바느질을 배웠다. 도미패션 디자인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엄마와 공동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엄마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엄마가 하는 작업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는 힘들 것 같아요.(웃음) 아무래도 엄마는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조금 보수적이기도 하시구요. 좋은 의상을 직접 만드는 데도 힘쓰겠지만, 좋은 옷을 소개하는 데도 눈을 돌리고 싶어요."

그녀는 1년에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일본 소호 무역에 대해 공부하며 일명 보따리상과 함께 여러 차례 일본을 드나들었고, 지난해에는 1년 과정의 'SNS 코칭 지도자 과정'을 밟았다.

올해의 배움은 '글쓰기'다. 서울을 오고 가며 '이젠 글쓰기'라는 책을 펴낸 조영석씨에게 체계적인 글쓰기를 배우고 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느끼는 것들을 학교 강의가 아니면 풀기 어렵더라구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들을 재미있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졌어요. 그래서 책을 써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엄마와 같은 일을 하면서 느꼈던 삶의 이야기들을 패션 지식들과 더불어 엮어보면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올해 차근 차근 원고를 준비해 내년에는 출간할 수 있으면 해요."

경희대 의상디자인학과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고 부산 동서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장씨는 올해부터 '무대 의상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과목을 맡게됐다. 지금까지 '다자인 개론', '창작 디자인' 등을 맡아왔는데 또 다른 확장을 하는 셈이다.

"패션 아트라는 장르가 조금 낯설기는 하죠. 제 작업은 광목, 청바지 등 원하는 재료로 캔버스를 만드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해요. 사진 공유 사이트들을 활용해 멋진 이미지를 자주 들여다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요 . 포토샵과 일러스트, 핸드 페인팅, 염색 등의 다양한 과정 등을 통해 만들어지는 제 패션 아트 작품들이 누군가의 마음 속에 따뜻함과 온기를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장씨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학교'에 미련이 많아 힘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미련을 확 놓아버린 요즘 '작업'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했다. 조금 벅차더라도 해마다 두차례의 개인전을 꼭 열려고 하는 것도 작업의 결과물들이 만들어내는 행복 바이러스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장소영을 말해주는 세가지 키워드

나만의 색은 까다로움
부모님은 모든 일 후원자

▲까다로움

예민하고 까다롭고, 오래전 아파트 광고에서 까다롭게 구는 송윤아를 보면서 많은 지인들이 나를 떠올렸다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난 그말이 절대로 싫지 않았다. 지금도 나는 늘 학생들에게 아주 많이 까다로울 것을 주문하곤 한다. 디자인이든 인생이든 까다롭게 굴만큼 많이 느끼고 알아야만 독창적이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나, 나만의 색을 갖게 해준 가장 큰 특징은 남보다 더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단정지어본다.

▲융합

세상엔 많은 것들이 자기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곧 상식이고 편안하고 안정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난 엉뚱하게도 이런 질서를 깨트리고 싶어 하고 종종 실행에 옮긴다. 늘 그렇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다른 곳에 다른 것들과 함께 두곤 한다. 최근 몇 년간의 작업들도 내 방식의 코디네이션을 실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나처럼 상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융합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다.

▲후원자

누구나 혼자 태어날 수도 없다. 누구도 혼자서 자라나 어른이 되지 않는다. 물론 개인별 그 차이는 크겠지만 난 유독 많은 도움 속에 자라나고 공부하고 또 지금의 자리에 서 있다. 무한한 사랑과 모든 일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 부모님.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내 부모님 두 분께서는 믿음으로 채워주셨고 큰사랑으로 지켜주시면서 내 몫을 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이끌어주셨다. 두분의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장소영은

- 1970년 생
- 광주대 산업디자인 학과 졸업
- 경희대 대학원 의상디자인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 동서대학교 등 출강
- '어머니와 꿈꾸던 무지개' 등 4차례 개인전
- 도미패션하우스 디자인 실장

지퍼 등을 활용한 작품 '어머니의 저녁'